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7월 23일 (제908호)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보물단지

초등학교 시절, 소풍을 가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보물찾기였다. 선생님이 미리 나무 위며, 바위나 풀 사이에 숨겨놓은 쪽지를 찾으면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선물로 받았다. 공책이며, 크레파스 같은 것이 보물찾기 선물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좋았다.

그런데 보물찾기를 할 때 정말 열심히 찾으려 다녀서 몇 가지 보물 쪽지를 찾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사이다나 마시며 저희들끼리 노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남들이 선물을 받을 때야 찾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침만 꿀꺽 삼켰다.

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단지라고 생각한다. 지하 자원이며, 수산자원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한 과학이나 의학 역시 하나님이 주신 보물단지다. 그것의 주인은 바로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다.

보물찾기를 할 때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못 찾을 곳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다. 조금 노력하고, 조금 수고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놓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보물단지도 약간의 수고와 노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마7:7~8)고 말씀하신 것이다. 원양어업을 나서는 자들, 천연자원을 찾아다니는 자들, 또한 우주를 연구하는 자들, 첨단과학에 도전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보물단지를 열심히 찾는 자들이다.

자원의 고갈이 문제가 아니다. 아이디어의 고갈이 문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한다. 그러니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너를 위해 예비 되어 있으니 찾아라.’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지 말라

축복의 계절이 왔다. 성경캠프, 수련회, 하계산상집회로 이어지는 한 여름의 축복,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남김없이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꿈꾸고 도전해야 할 것은 천국의 상급일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

기빠하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든 길인 것이다. 그 길을 가다보면 물론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 가룟 유다는 넘어지고서 믿음마저 떨어졌기에 재기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넘어졌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원동력인 것이다.

목사님이 이때에 항상 기도하시는 것은 좋은 날씨와 오가는 차량의 안전, 그리고 찾아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한 좋은 환

이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계산에 신경 쓰는 이유가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을 내게 뵈까 해서 의문을 갖는 거 아닌가?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십일조인데 설령 계산이 좀 틀렸기로서니 하나님께서 계산 틀렸다고 주실 복을 안주실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자세라면 족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 정확한 계산,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즐겨 내는 성도들을 보면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기회에 적극 동참하자

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계2:25~26).

약속으로 답을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 녹록치 못한 관계로 많은 성도들이 도중에 포기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13:24).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주변 경관을 감상하고 자시고할 처지가 못 된다. 오직 앞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광야는 뜨거운 열사데다가 물을 찾아 샘을 파야하는 곳이다. 딱히 볼거리도 놀거리도 없는 곳이다. 우리가 선택한 천국 길은 이처럼 좁은 길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소돔 땅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 길이다. 하나님으로

경, 풍성한 먹거리다. 목사님은 벌써 몇 주째 기도원에 체류하시면서 기도원 조경과 대대적인 청소를 독려하고 계신다. 또한 주일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셨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 끼어드는 순간 의미상실이다.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망했는가(행5:1~11)?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적질한 것도 아니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시작한 일인데 거기에 계산이 끼어들고, 그러다보니 거짓말하게 된 것 아닌가.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하고 나섰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이다. 십일조도 마찬가지다. 가끔 성도들 중에 십일조 계산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

은혜에 감사하기에 하는 것이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는 것은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는 것이다. ‘내가 아니면 내 자손에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응답의 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다. 수련회에, 어린이 성경캠프에, 산상집회에 감동 오는 대로 참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

청년대학부 : 7월 24(월)~26일(수), 중고등부 : 7월 27(목)~29일(토)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 02-533-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3:1~10)



내가 있어야 남을 줄 수 있다

제 바로 밑의 동생이 부도위기에 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저를 불러 “네 동생 좀 도와줘라. 네가 장남이니 아버지 대신 아니니? 부도 좀 막아줘라.”고 신신당부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보니 도와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네 자식이면 이러겠느냐?”며 많이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 때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개를 도와주면 서로 다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나중에 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남도 주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는 말씀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남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기도시간에 맞춰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 때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앓은뱅이는 성전 미문 곁에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앓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한 톨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앓은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앓은뱅이가 뭘 줄까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3:6)고 했습니다. 그리고 앓은뱅이를 일으키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 바로 뛰었습니다.

남의 일에 상관 말고 네 땅부터 기름지게 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앓은뱅이에게 금이나 은보다 더 큰 선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다가 불잡혀 공회에 넘겨졌을 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무슨 권세와 누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자 베드로가 당당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행4:10)고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

세를 내게 주셨으니”(마28:18).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1:12),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예수님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목회 32년 동안 저는 오직 제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고, 소경을 눈 뜨게 하고, 병어리를 말하게 했으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많은 불치병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

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 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 즉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고전4:20). 그런데 말입니다.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실력,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더 커지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더 확장되고, 더 불어나는 비결 말입니다.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은 쓰지 않고 모아야 늘어나고 불어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11:24). 그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언젠가 우리 신학교 교수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럼요, 지식과 지혜도 나누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도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즉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욱 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리라”(잠

토에 뿌린 씨처럼 30배, 60배, 100배로 늘게 됩니다. 요즘 기도원에서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과 인천 교회는 물론이고 지교회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며, 각종 야채와 아이스크림에 휴지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 곧 나누면 늘어난다는 법을 아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뭇 가져오라는 소리가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슬픔, 나누면 절반 기쁨, 나누면 두배

얼마 전에 기도원 근처의 맛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반찬 가지 수가 30가지나 되었습니다. 반찬을 겹쳐놓을 정도로 상에 가득하고 푸짐했습니다. 제가 주인에게 이렇게 해서 뭐가 남겠냐고 했더니만, 그 주인 하는 말이 “퍼주고 망한 집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샘의 물도 계속 퍼내야 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나입니다. 내가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이 붙어야 남에게도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눌 때 그것이 흔들어 놀라 넘치게 내게 돌아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있을 때 봉사하세요. 그게 나누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심으세요. 지식이 있거든 지식을 나눠 좋은 세상을 만드세요. 내게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돈을, 지식을, 능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에 심어 더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11:25). 미국이 오늘날의 경제대국 이 된 것도 많은 나라 도 자주 사용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야 더 큰 능력이 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을 쓰지 않으면 녹이 슬듯, 자동차를 쓰지 않으면 고철이 되고 말 듯,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한국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기도원에도 무료급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모기업의 회장이 된 집사에게 이 일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그 때 그 집사 부부가 쌀 80kg짜리 50가마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쌀로 200가마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부는 제 말을 믿음으로 받더니 트럭에 쌀 200가마를 실어 기도원에 보냈습니다. 그 후 그들의 기업은 승승장구했고, 지금 큰 건설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심는 것은 썩지 않고, 옥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젊음의 특권

내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는 연일 데모로 날을 지새우던 때였다. 젊은 생명들이 꽃다운 나이에 스러지곤 했다. 그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그 때는 지금처럼 청년실업이 첨예한 문제도 아니었기에 당시 젊은 이들은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국가의 문제, 민주주의, 자신의 미래비전 등에 생각하던 공간이 좀 더 넓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가공동체의 위기는 젊은이들을 일신의 안위보다는 더 큰 이념에 투신하게 한다. 일제 때 우리 젊은이들이 항일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것도, 한국전쟁 당시 조국수호를 위해 피를 흘린 것도, 철권정치 시절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몸을 던진 것도 국가공동체가 타개해 나가야할 뚜렷한 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90년대 말 IMF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던져버린 느낌이다. 지난 IMF 때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며 수많은 가정들이 풍비박산이 났었다. 평생직장도 사라지고, 느슨했던 취직자리도 하늘에 별 따기가 되어갔다. 그러다보니 수십 년째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란 존재, 극복해야할 분단체제 등의 문제나 국가발전의 대의보다는 당장 돈이 최고라는 천민자본주의의 그늘이 엄습한 것이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도전과 모험보다는 안전한 곳을 찾는 것도 불투명한 미래의 크기가 커진 까닭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의식의 변화가 큰 몫을 차

지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 우리 때는 없어서 서로 사랑하면 없는 대로 단칸방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젊은 이들은 당연히 자동차나 집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무수한 대졸자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사회 엘리트들이 아파트 평수 더 늘리는데 골몰해서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는 수많은 직종을 집어삼키고 오늘 젊은이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분야들을 AI(인공지능)가 대체하리라는 미래진단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골몰하고 있는 목전의 문제들에서 벗어나 긴 안목으로 시대를,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에 마냥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고만 있을 것인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도전하는 젊은 정신이 진정 요구되는 시점이다.

바라건대 먼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바란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빌2:13)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등불이신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해주신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일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지원이 따른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매진하는 젊음, 도전하는 젊음, 그 젊은 정신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적극 지원하신다.

Henry Han

:: 세상을 보는 창 ::

다음세대

노벨은 다이어마이트를 발명하여 유럽의 거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벨은 무심코 신문을 읽다 깜짝 놀랐다. 자신의 사망 기사가 프랑스의 한 신문에 실렸기 때문이다. 사실,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것을 신문사가 잘못 보도했던 것인데, 이 사망기사도 당황스러운 것이었지만 노벨을 더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었다. 그 기사 제목인즉슨 ‘다이어마이트를 발명한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노벨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라 부르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노벨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고, 무언가 다음세대에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자신이 모은 전 재산으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 혁혁한 공헌을 세운 각 분야의 과학자들을 시상하는 노벨상을 만들었다. 오늘날 노벨을 떠올릴 때 그 누구도 그를 전쟁상인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노벨은 다음세대를 위해 분명 큰 몫을 한 것이다. 사망 오보 기사가 나간 8년 후인 1896년 노벨은 정말로 죽었다. 그때 노벨의 사망기사 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살다간 믿음의 사람 노벨 사망하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다음세대는 이삭이, 다윗은 솔로몬이, 모세는 여호수아가, 엘리야 다음은 엘리사가, 사도 바울 다음엔 디모데가 있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수아는 분명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 여호수아 다음의 세대가 어떤 시대인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였다. 이사야 2장 8~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와 종 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매년 청소년수련회라는 집중교육을 통해 다음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믿음의 계승을 지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수련회에 모두 참석하여 믿음을 계승하는 젊은이들이 되길 소원한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지!

어렸을 때 운동장 한쪽 스탠드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지곤 하였다. 사람들은 왜 나와 따로 존재하는가? 내 밖에 존재하는 이 만물들은 뭔가? 언어에 익숙해졌을 때 만들어낸 표현이 ‘나는 왜 나일까?’였다.

사업할 때, 술이 취해 집에 돌아와 침대에 걸쳐 누웠는데 여섯 살 막내딸이 배 위에 올라타더니 ‘아빠, 나는 왜 나일까?’ 묻기에 정신이 번쩍 들어 대답해주느라 애쓴 기억이 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정체성에 관해 꾸준히 탐구하는 종교성이 있다.

어렸을 적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누가 나를 낳았다.’ 하는 말이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재밌어서 “광주야, 니 엄마가 너 낳을 때...” 어찌고 하면 “누가 나를 낳아?”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럼 누가 낳았니?” 하면 “나는 내가 낳았지.” 하고 소리 질렀다.

어렸을 때엔 영이 맑아서 진실을 말하기도 한다.

나는 내 애들을 내 소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통해서 생명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다. 다 각자 하나님의 예정 안에 태어난 것이다. 내가 자식 낳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것이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들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가. 동물 복제 등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리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 그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할 때 바로 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분으로 인해 사는 자임을 깨닫는다면 삶은 물론이고 신앙도 정립될 것이다.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 사랑 & 행복 ::

수련회를 기대하며

바야흐로 수련회의 계절입니다. 유아유치부부터 대학청년부까지 여름수련회 준비에 돌입하여 바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부어 주실 은혜에 기대가 앞섭니다.

저는 9살 유초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결혼 전 29살까지 20년간을 연합수련회에 참석했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유치부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와 함께 라서 수련회가 좋았고, 웃고 뛰느라 정신없었지만, 때 수련회마다 항상 나를 붙잡고 울며 기도해주는 전도사님과 선생님, 전심으로 안수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내가 무엇이었기에 날 위해 울며 기도하고 수련회로 인도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스무 살이 넘어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친구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문득 돌아보며, 어린 시절 수련회에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었던 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스무 살이 넘어 참석한 수련회는 때 회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성령을 사모하여 눈물의 기도를 나눴던 친구들

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아르바이트나 직장 때문에 참석이 여의치 않았던 친구들과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켜 수련회에 참석하고, 세미나를 통해 회심하고 삶의 목표를 세워 결단하는 내 자신과 후배들을 보며 참으로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28살 여름에는 수련회를 앞두고 직장 내 인턴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신경이 쓰여 수련회에 집중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수련회 준비에 기도로 매진했더니 동료를 통해 합격소식을 전해 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때해 여름을 수련회에 쏟았지만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후회되는 시간이 없었고, 최선을 다해 참석했다 여겼음에도 여전히 그립습니다.

수련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 작정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젊음에게 허락된 특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를 축복의 자리로 알고 사모하며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참석한 교단 젊은이들의 영적 회복과 삶의 전환점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김고은

khjc77@hanmail.net

:: 성경에서 배운다 ::

:: 참된 깨달음 ::

중독의 반대말, 관계

‘마약과의 전쟁, 그 시작과 끝’의 저자 요한 하리는 TED강연을 통해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닌 ‘관계(소통)’라는 흥미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우리는 흔히 마약 중독자들이 헤로인의 화학작용으로 마약을 끊을 수 없는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큰 수술 뒤 진통제로 맞는 ‘다이하몰핀’도 최고급 마약이지만 이에 중독되어 계속 마약중독자로 남는 사람은 없다. 또한 베트남 전쟁 때도 베트남에서 미군의 20%는 마약을 복용했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와서는 마약을 끊고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결국 그는 마약중독이 화학적인 요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게임, 핸드폰, 음란물 등 다른 종류의 중독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성경에도 심각한 중독을 겪던 사람이 있다. 바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녀는 영적 갈급함을 6명의 남편이라는 중독적 이성교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이다. 또한 이로 인해 타인과 관계도 단절되어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 홀로 물을 길러 와야 했고 예수께서 건네시는 따뜻한 말씀에도 가시 돌친 말투로 응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갈급함을 짚어주시는 예수 앞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고, 결국 그녀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곧장 사람들 속에 뛰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것에 중독되고 미디어중독, SNS중독 등 ‘흥내’ 낸 ‘가짜 관계’에 매달리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사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조차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의무적

인 기도와 형식에 묻혀 신령과 진정이 결핍된 ‘가짜 예배’를 드리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 평가 받은 다윗은 시편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슬픔 등을 하나님 앞에 한 치의 여과 없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운데 용서하는 척, 슬픈데 잘 참고 있는 척 하는 법이 없이 오롯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했고, 그래서 더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 그래서일까?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친히 ‘교제’해주시고 품으시며 소통해주셨다. 이제 청소년수련회와 산상집회, 여름성경 캠프 등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우리의 가면을 벗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반드시 목마르지 않는 샘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일에도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께서 세상 끝날 까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생활 속의 잠언 ::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는 것

아주 오래전, 거의 이십 수년전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사업장이 지금의 학원이다. 지난 시간 동안 사업장에 찾아온 위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졌었고, 이제는 무엇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직업을 찾아서 다녀도 보고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기업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며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다. 학원가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과 인구 절벽의 초기 현상으로 인한 원생 수 감소에 결국 업종을 변경하며 학원가를 떠났다. 그러나 나는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시편 91편의 말씀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았다. 2년 전,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시킨 후에는 학원생 2명이 학원에 남게 되었다. ‘그래, 이제는 정리하자’ 생각하고 마무리하려는데, 상가의 관리인이 “원장

님은 마음만 다시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한마디 던지고 지나갔다. 문득,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나의 기업을 그렇게 허물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간구했던 20일 작정 기도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20여 년 학원 운영 이후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 아침마다 기도 전에 부르는 복음송이 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라는 그 복음송을 기도처럼 읊조렸다. 그런 읊조림마저도 낱낱이 듣고 계셨던 주님이신지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놀라운 길로 나를 예비하셨다. 얼마 전, 선교사 친구 부부 덕분에 쿠알라룸푸르를 다녀왔다. 주일날, 친구 부부는 멀리 원주민 마을로 선교활동을 하러 떠나며 근처 교회를 알려주었다. 그곳에 갔다가 현지에서 오랫동안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늘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그분과 여러 차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평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육과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앞선 나라였다. 그 좋은 환경에서 한국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든 라이브 영어를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6개월 여 간의 준비 끝에 이번 8월 초에 10명의 학생들이 쿠알라룸푸르로 단기 어학연수를 떠난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암흑 속에서 헤매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두 손을 잡으시고 한국에서의 교육 사업 이후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인도하고 예비하고 계셨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더러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내 생각을 접어두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천성까지 따라가려고 한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주고 또 주기(Give&Give)

이스라엘에는 갈릴리와 사해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는데, 두 호수는 똑같이 요단강을 통해 물을 공급받습니다. 갈릴리호수는 요단강의 물을 부지런히 받아 사해로 흘러보내줍니다. 그러기위해 항상 물이 움직여 흐르니 갈릴리호수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맑은 호수에는 고기 잡는 사람들로 북적대며 고기도 살고 사람도 살리니 이는 진정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그에 비해 사해는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이름 그대로 ‘사해(死海)’, 죽은 호수입니다. 강 주위에는 지독히 짠 해풍과 염분 때문에 아무런 식물도 살지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해는 물을 받기만하고 내보내지 않아 고인물이 계속 증발하여 염분량이 늘어나니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호수가 된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니 결국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은 뭘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훈련하는 삶, 그리고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 이 셋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한다면, 나는 ‘Grace’, 즉 은혜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과 영적 훈련을 하는 삶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받은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나누되 풍성히 나눌 때 우리에게 기쁨의 강물이 넘쳐흐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 이 말씀은 인간 생존의 법칙과 영생의 법칙을 한 마디로 요약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물질을 주면 물질을 안겨주시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안겨주시며, 기쁨을 주면 몇 갑절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사랑도, 능력도 항상 흘러 넘쳐야지 받기만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사해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고받는 Give&Take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고 또 주는 Give&Give니까요!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하계 산상집회

일시 : 7월 31(월)~8월 17일(목)

장소 :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 02-533-9191